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공양 페이지

수덕사

◇수덕사 종합중창불사 조감도.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들이 덕숭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위용을 갖추고 대웅전을 외호하고 있다. 중창불사는 불교문화를 새롭게 꽃 피운다는 시각에서 시작한 만큼 전문가와 학계의 철저한 자문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수덕사의 황하루 개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연경관에 맞춰 개축될 황하루에는 蓮池 등의 조경조형물 이외에도 2백40여평에 이르는 '근역성보관'이 지하 1층에 자리잡게 된다.

황하루 개축등 중창불사 '한창'

성보전시관 건립 삼존불등 5백여점 소장 예정

장학사업등 인재양성 '앞장'…유치원위탁운영도

한국불교의 큰 스님 만공선사를 정점으로 기라성 같은 인재를 배출한 덕숭문중의 본찰 수덕사. 일주문을 지나 산허리 돌아서면 청련당과 그 추녀 밑에 걸린 수덕사 삼층석탑이 눈에 들어온다.

경내를 향해 계속 외길을 따라가면 왼편으로 한창 공사중인 황하루가 보인다. 선종 본찰이 다시 면모를 일신하고 위용을 드높이고 있는 그 현장이다. 불과 93년까지만 해도 백련당과 건물은 비가 새기도 하고, 요사채의 흙벽이 허물어지는 등 대가람으로서의 면모가 훼손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덕사는 지난 93년 법장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덕숭문중 본찰'의 재모습을 되찾는다는 발원으로 대대적인 종합중창불사를 시작했다. 이번 불사는 전체적인 모습은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건축물이 덕숭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모든 건물이 위용을 갖추고 대웅전을 외호하도록 조성됐다.

그래서 백련당과 청련당의 축대를 대웅전 전면 축대와 동일하게 해 대웅전 양쪽으로 배치했다. 또한 현재 황하루를 해체해 한계단 낮추어 복원하는 불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5백40여평인 황하루 아래 연못을 80평으로 축소, 원래의 자연경관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조인정사는 법종각 위치로 옮겨졌으며 조인정사터에는 고증을 통해 사리탑을 세우고 범종각은 법고각과 합쳐 단일건물 사물각으로 개축했다.

총 1백억 이상의 예산으로 착수한 수덕사 중창불사는 문화재 전문가를 비롯해 역사·미술 등 관련 학계의 고증과 철저한 자문을 통해 단순한 건조물이 아니라 역사와 불교문화를 고증해 낸다는 이념에 입각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불사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황하루 지하에 2백40여평 규모로 들어설 성보전시관. '근역 성보관'이라 이름 붙여진 성보전시관 건립을 위해 이미 지방정부로부터 5억의 예산을 확보한 수덕사는 찬란한 백제문화재와 역대 선승들의 유품전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보전시관이 완공되면 고려시대 삼존불상과 향로, 불상, 만공스님의 거문고 등 보물급을 비롯해 경허스님의 병풍, 개심사 목향로 등 모두 4백~5백여점이 전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중인 수화도·야화도 등 오불도(五佛圖)를 옮겨와 전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황하루 주변에 연지(蓮池)·불이문·요사채 등을 새로 신축한다.

◇지난해 2월 태국을 방문한 법장스님은 태국의 법왕청을 방문, 양국간의 불교문화교류 및 현지교민 법적지위보장 등을 논의하고 우호적인 협정을 맺었다.

무엇보다 수덕사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최근 3년간의 소송 끝에 사하촌(寺下村) 상가지역 5만9천여평을 되찾았다. 따라서 사찰입구에 즐비하게 널려있는 상가건물을 정비해 일주문을 더 아래 쪽으로 옮기고 기존 일주문 자리에는 천왕문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수덕사는 건축불사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등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현재 동국대 4명 승가대 2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학대상자 폭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장학 수여대상자를 확대해 종비생과 함께 다른 학문 전공자라도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재가불자라면 누구든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수덕사는 서산에 있는 서광유치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충남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춘 유치원으로 지역사회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유치원 운영을 계기로 수덕사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포교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 미래 불교의 든든한 동량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터뷰 주지 법장스님

◇경허·만공스님 사상연구회 발족과 만공장학회를 복원하겠다는 주지 법장스님.

"덕숭문중 원찰 위용회복 대중에 더 가까이 갈 터"

망실토지 6만평 환수…복지활동 적극나서

"수덕사 주지에 취임하면서 한국불교의 선맥을 계승하는 종가집의 위풍을 재조명하고 인재불사에 진력하겠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덕숭문중 본찰'의 위용을 찾기 위한 중창불사와 수덕사 망실토지 환수, 인재불사 등을 일으켜 온 주지 법장스님은 지난 4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법장스님이 그동안 해온 일은 사하촌 개발로 인한 13건의 송사사건 해결과 백련당 중창불사, 대웅전 좌·우측 보수, 도량 확장불사, 5만9천여평의 망실토지 환수 등 선종본찰 수덕사 중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덕사가 차츰 옛 가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는 황하루 개축과 성보전시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각을 넓혀 불교가 대중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활동에 더 진력 할 생각입니다."

수덕사의 중흥이 곧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생각으로 법장스님은 현대에 걸맞는 승가상 확립을 통해 불교가 대중생활 깊숙히 자리잡을 수 있는 다양한 포교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강조했다. 대중에게 친근히 다가가지 않고는 불교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장스님의 지론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종회 사무처장, 동국대 감사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스님은 현재 동국대 이사이며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회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며, 한·태불교협회를 창립,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종무행정과 법률, 교육에 두루 해박한 지식을 갖춘 스님답게 불교의 사회복지와 인재불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허·만공스님 사상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국불교 법맥을 계승하고 만공장학회를 부활시켜 보다 적극적인 인재불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탑린공원을 조성해 한국 장의문화에 기여함은 물론 승단과 사찰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법장스님은 경허·만공스님의 사상적, 문학적, 예술적 연구는 불교의 학문체계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만공장학회 역시 다변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불사를 위해서 꼭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탑린공원 조성 역시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사업으로 불교가 대중속에 친숙히 파고들 포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신심·원력·사심없는 마음' 법장스님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며, 이 소신대로 행할 때 모든 일이 부처님 뜻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기 2540년 덕숭총림 수덕사

만공 큰스님 다례및 보살계 수계법회 동참안내문

원력이 있는곳에 가피가 있고
가피가 있는곳에 원만성취가 있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호서제일의 백제불교 요람이며 근대불교의 산맥을 진작하시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신 경허·만공 대선사의 혜맥(慧脈)을 이어 내려오는 선지종찰입니다. 금번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는 만공 큰스님의 탄신 115주년을 맞이하여 다례를 올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여법히 수행하는 방편문이며 윤회고(輪回苦)를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수덕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에 수희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현세의 고통을 넘어 이고득락의 열반도(涅槃道)를 이루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불기 2540년 3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김 법 장 합장

■덕숭총림 수덕사 보살계 수계대법회

■일 시 : 불기 2540년 4월24일 오전 11시(음력 3월7일)
■장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덕숭총림 수덕사
■보살계 동참금 : 3만원
■접수처 : 수덕사 종무소 전화 ☎(0458)37-6565, 0071
FAX(0458)37-0072
수덕사 서울포교당 서천사 (02)682-5055

■예산, 서산, 당진, 태안, 홍성소재 각 사찰 종무소로 문의바람■

■천일기도 회향 및 입제 만등불사 권선문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불자님의 업장소멸과 만복운흥을 발원하는 긴 3년간의 천일기도를 아래일자에 회향하고 다시 천일기도를 입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참하신 많은 불자님과 함께 깊이 경하(慶賀)드리면서 그 뜻을 찬탄하고 밝게 조명하기 위하여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희동참 하시어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40년 4월24일 오전 11시(음력 3월7일)
■천일기도발원기간 : 1996년 음력 3월 7일부터
1999년 음력 3월 7일까지
■천일기도 동참금 : 1만원
■만등불사 동참금 : 1인 1등 오천원
■우편접수 : 우체국 계좌번호 311472-0009068(수덕사)

수덕사명부전 지장보살 개금불사 회향 점안식

수덕사 명부전 지장보살 개금불사를 원만히 회향 점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